



가톨릭사회복지의 정체성

비사회복지사 과정

위수경 | 김태환



사회복지법인 Caritas SEOUL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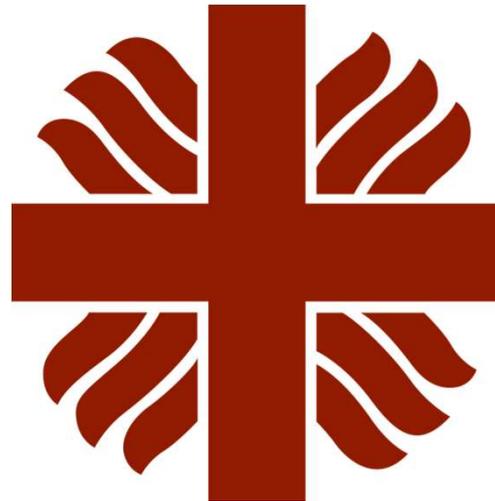
가톨릭사회복지의 조직
Caritas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알고 계셨습니까?

Caritas (카리타스)
알고 계셨습니까?

사랑, 애덕, 자선 / 라틴어



가톨릭 공식 사회복지기구

Caritas
카리타스

- 카리타스는(Caritas)는 사랑, 애덕, 자선이라는 뜻의 라틴어로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의미**
- 위에서 아래로 그어진 십자가 기둥은 **우리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께로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의미**
- 좌우로 뻗은 십자가는 **하느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웃사랑을 의미**
- 네 방향으로 뻗은 불꽃은 **자신을 바쳐 이웃에게 봉사하는 사랑을 의미**

교회법상 공법인으로 교황청 사회복지 평의회 관할기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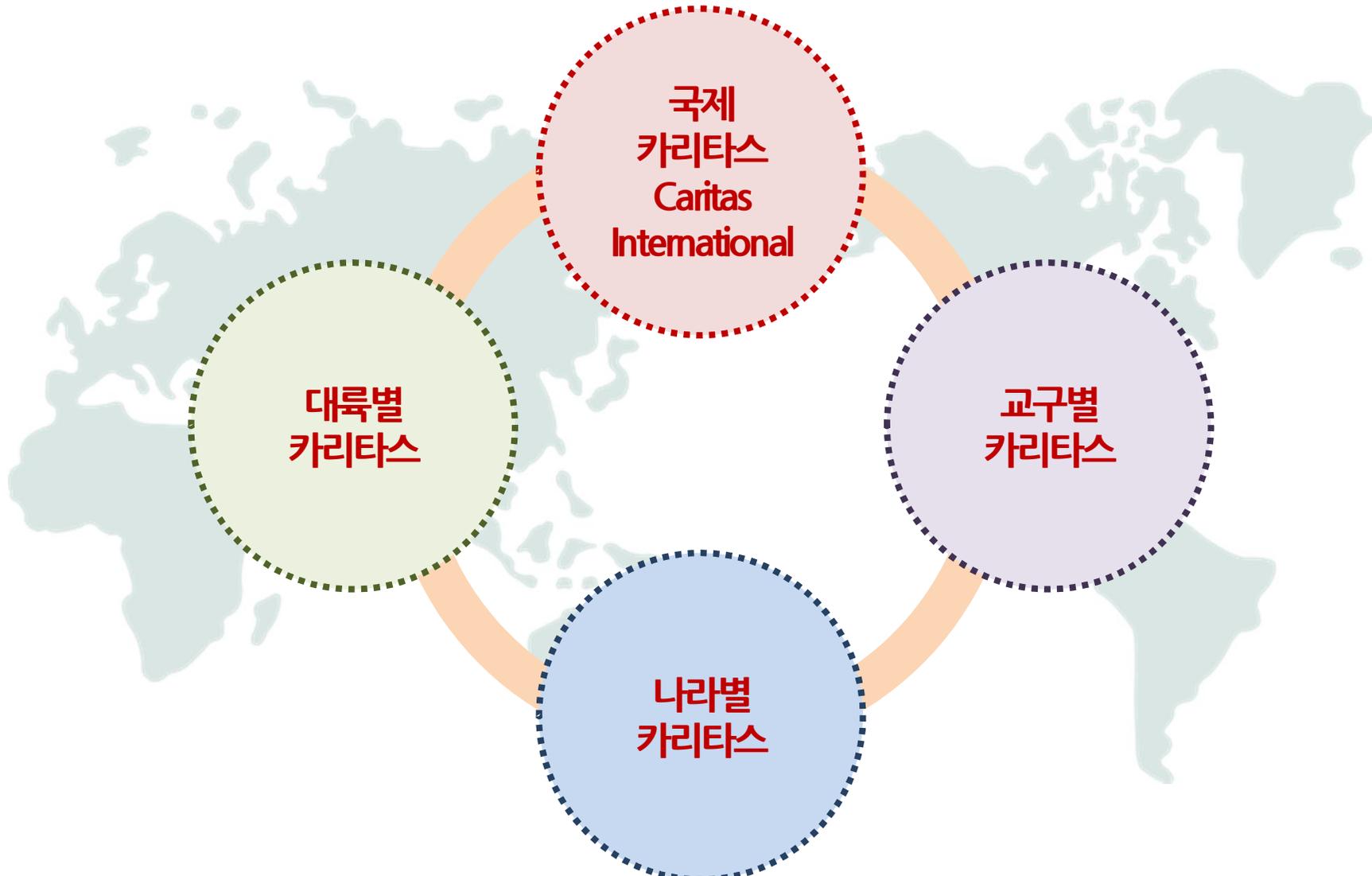
1950년 9월에 각국에서 자선활동을 하던 카리타스가
연합체를 만들어 탄생하였습니다

현재 165개국에 카리타스 회원기구를 두고 있으며, UN협의기구 지위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해외원조는 카리타스 조직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장 Oscar Andres Rodriguez Maradiaga 추기경







- 세계 각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아, 내전, 자연재해 이재민에 대한 상황을 해당 국가 카리타스 회원기구로부터 보고를 받고
- 필요시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한 전문가를 국제 카리타스에서 현지에 파견하고
- 해당 지역 카리타스 회원 기구의 긴급구호 계획 원조 요청을 접수
- 긴급구호 원조심의회에서 심의
- 전 세계 카리타스 회원기구에게 긴급구호 요청서 발행
- 카리타스로 부터 지원 참여 및 액수 통보 받음
- 원조기금 접수(원조금 직접 송금도 가능)
- 현지 송금
- 원조사업 완료 후 평가 보고서를 지원국 카리타스에 발송



인류는 한 가족, 모든 이에게 양식을

아시아 가톨릭 사회복지활동을 총괄하는 기구

1999년 조직되었으며, 본부는 방콕에 위치하여 있다.
총 23개국에 소속되어 있으며,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더 나은 재난 대비상태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초점이다.



의장 Most Rev. Isao Kikuchi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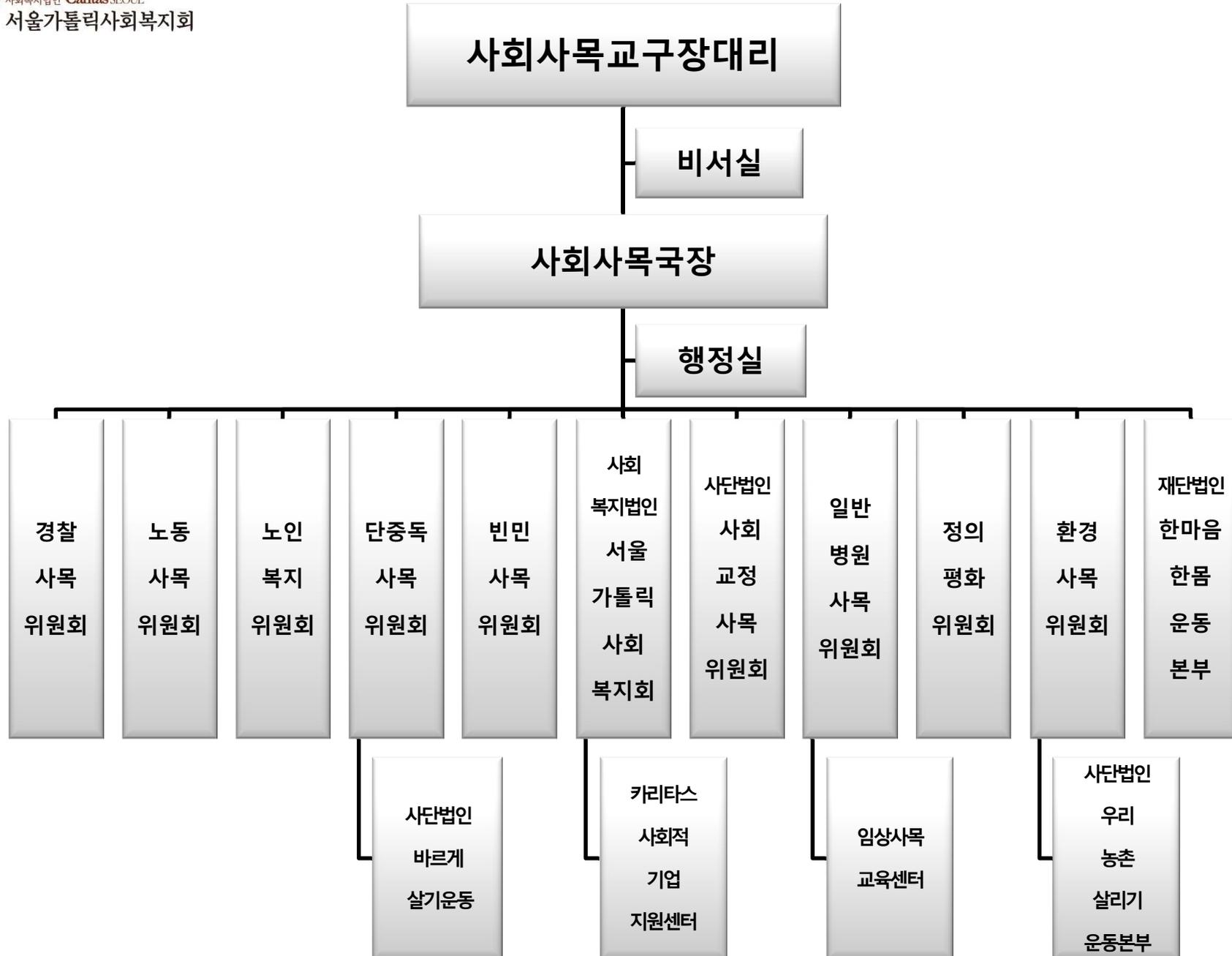


국내 가톨릭 사회복지활동을 총괄하는 기구

1976년 국제카리타스의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긴급구호, 개발협력 사업, 대북지원사업 실무추진 기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사회복지위원회(국내), 한국 카리타스 인터네셔널(국제)



대표이사 김운회 루카 주교 (춘천교구장)





서울 내 가톨릭사회복지활동을 총괄하는 기구

1976년 9월 27일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엄한 삶을 사는데 헌신합니다’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70여개 복지시설과 220여개 본당과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합니다

초대대표이사는 김수환 추기경님이셨습니다



대표이사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

MISSION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엄한 삶을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헌신합니다

VISION

인간존엄성을 바탕으로
교회와 지역사회가 연대하는 복지공동체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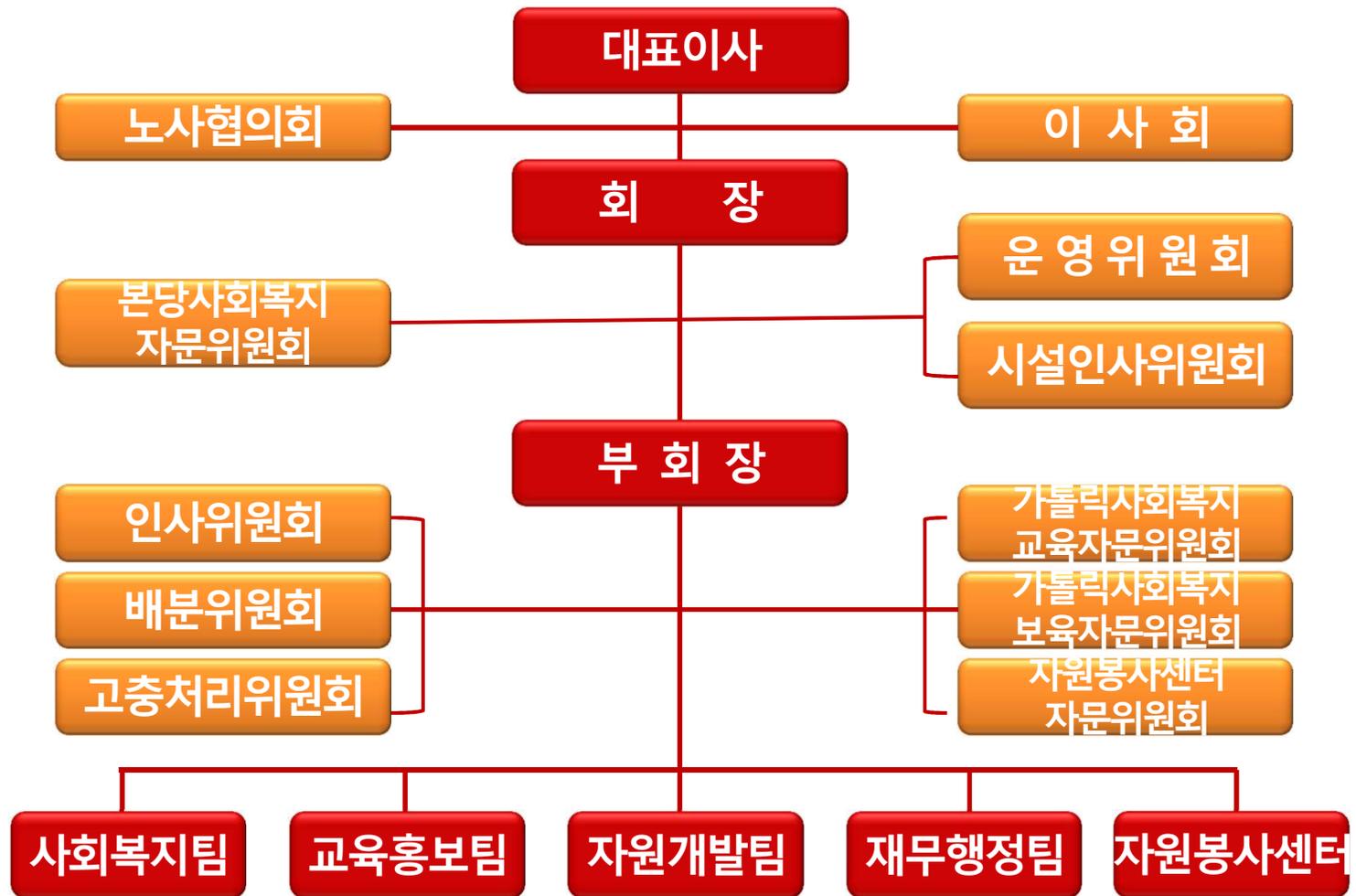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사회복지관

본당 중심의 지역사회 발전을 지향하는 교구사회복지회

미래 사회복지를 선도하는 전문사회복지기관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네트워크기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조직도



주요업무

재무행정팀

- 법인 기본재산 관리 및 전반적인 운영관리
- 100여개 직영수탁시설 재산과 인사관련, 수탁 및 재수탁 업무

사회복지팀

- 250여개 등록시설에 대한 지원, 업무점검, 고충처리, 지도감독
- 본당사회사목 활동지원 및 시설과의 네트워크 조직

교육홍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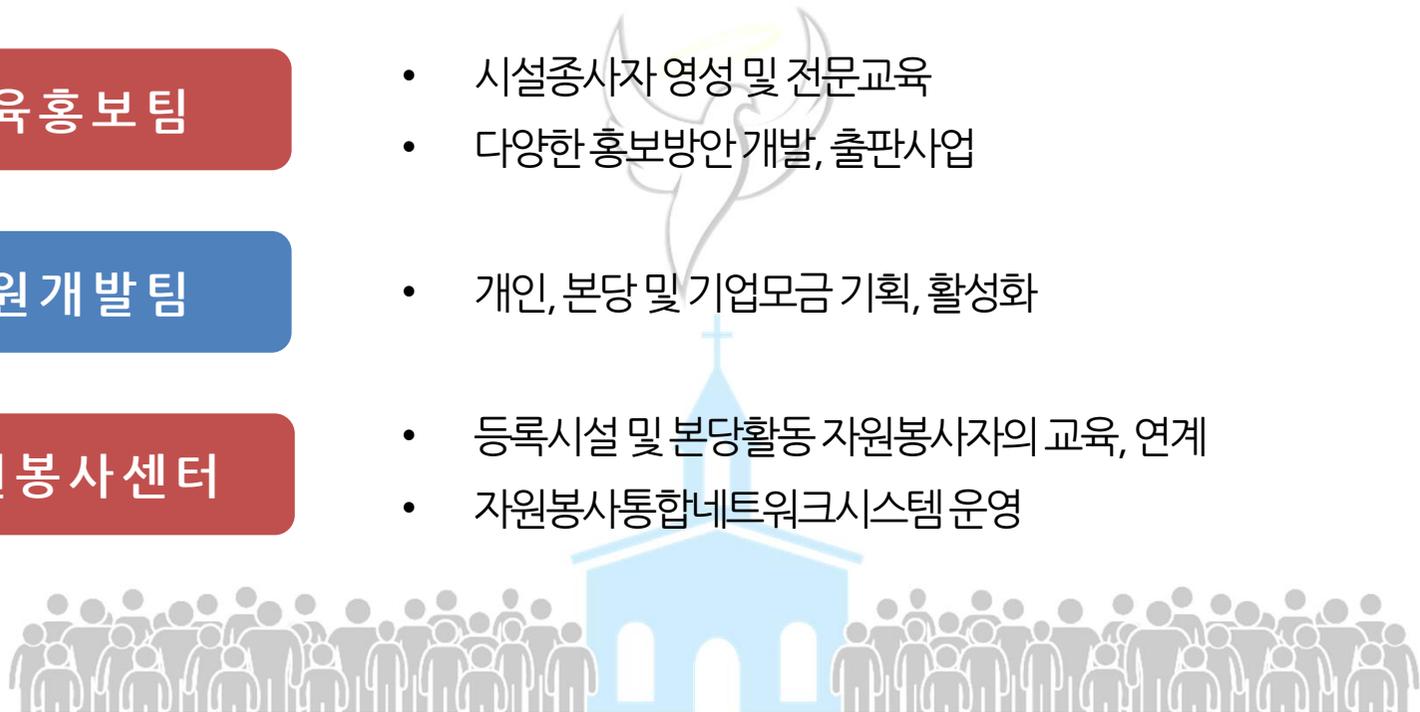
- 시설종사자 영성 및 전문교육
- 다양한 홍보방안 개발, 출판사업

자원개발팀

- 개인, 본당 및 기업모금 기획,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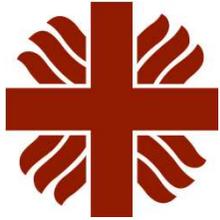
자원봉사센터

- 등록시설 및 본당활동 자원봉사자의 교육, 연계
- 자원봉사통합네트워크시스템 운영





시설현황



- 직영시설 67개

재산과 운영에 있어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곳



- 수탁시설 49개

지자체에서 설립한 시설에 운영을 맡은 곳



- 등록단체 154개

서울대교구에 인준을 받은 시설

홈페이지 주소



<http://www.caritasseoul.or.kr/bokji>



가톨릭사회복지에 대해 이해해야 하는 이유
Catholic & Social Welfare

가톨릭(Catholic)



- **사전적 정의** : 로마 가톨릭교회의 법통을 따르고 그 교의를 신봉하는 그리스도교의 정통 교파
- **가톨릭(catholic)의 어원** : “보편적인, 로마교회의” 라는 뜻의 형용사
- **보편적, 일반적**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katholikos에서 유래된 말로 “**모든 사람이 모든 시대에 모든 장소에서 믿어 온 것**”을 의미함.
- **교회가 보편적이다** : 교회가 가르치는 신앙의 정통성을 의미하는 말로 즉, 정통한 신앙을 전하는 교회의 가르침을 뜻함.

가톨릭(Catholic)



- 왜 보편적이라고 하는가?
협회의 관점에서 종교적 예식이 전세계적으로 동일
광의의 관점에서 인간에 대한 관점이 동일
- 한국에서는 천주교가 전래된 이래 서학, 천주학, 천주교, 카톨릭교 등 혼용되다가 주교회의에서 “천주교” 또는 “가톨릭교”를 공식명칭 선택
- 가장 큰 계명 :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루카복음)

사회복지

-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부적응, 갈등 등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와 실천



-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기 위한 제반법률, 프로그램, 정책과 제도적 체계를 총체적으로 함축 하는 개념
-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 빈곤, 노령, 실업, (산업,자연)재해, 사망, 폭력, 학대, 장애, 돌봄 등
- 사회 속 다양한 사람들이 갖는 사회적 위험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구조의 책임

정체성



-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 의식의 주체에 따라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으로 구분
개인적 정체성 : 한 개인의 고유한 특성, 자기개념, 사회적 역할

“나는 누구인가?”

사회적 정체성 : 사회집단과 범주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자기개념

“우리 조직은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 정체성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o)
- 강요 혹은 개종권유(x)

정체성



- 그/그녀가 가톨릭교회가 직접 운영하거나 정부/지자체로부터 가톨릭교회에 위탁한 시설,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고 간주
- 그/그녀는 자신과 이 집단을 동일시하여 자신의 일과 자신의 정체성을 가톨릭사회복지로 범주화 함.
- 지속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이 조직의 미션과 비전과 일치시키려 노력 "가톨릭사회복지의 종사자"로서 정체성을 강화
- 이것이 강화되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조직을 하나로 간주
- 일하는 과정에서 다른 조직(개신교, 불교운영, 종교에 기반을 두지않은 운영주체)의 시설과 비교
- 소속 집단의 긍정적인 속성을 많이 발견하게 되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장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
- 부정적인 속성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거나 반대로 떠나는 방향을 선택

가톨릭 정체성의 조작적 정의

- 가톨릭신자(또는 비신자)가 가톨릭교회의 이념(신앙, 운영목적 등)에 동의하여 가톨릭교회가 운영하는 복지기관에 소속되고 자신과 이 집단을 동일시하여 다른 집단과의 비교과정에서 고유성, 독특성, 우월성을 느끼는것.



가톨릭 정체성 확립의 방향



- 다양한 운영주체와의 경쟁 속에서 가톨릭사회복지의 새로운 정의
- 미시적 영역에서의 고유성 강화방법은 영성을 심화하여 비신자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방향
- 종교성/영성은 가톨릭종교강요 혹은 개종권유의 방향이 아닌 가톨릭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자신의 내적 동기를 신앙에서 이끌어내는 것.

가톨릭 정체성 확립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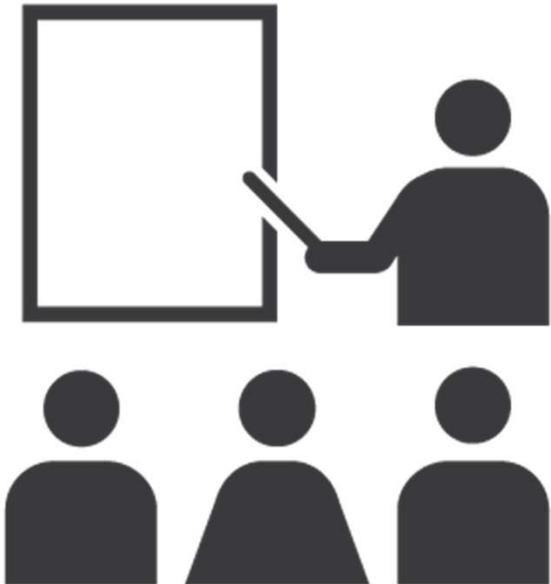
- 가톨릭사회복지의 강점 강화 : 투명성, 헌신성, 자원 동원능력, 조직의 통일성, 영성적 자원의 보유, 국제 네트워크, 종교에 대한 포괄주의적 태도 (사회복지를 선교의 수단이나 매개로 사용하지 않음)



-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의 변화 수용 : 소명의식에서 직업의식, 종사자들의 정치세력화, 시혜에서 권리, 헌신성에서 전문성 등 시각의 변화

우리는 왜 가톨릭사회복지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는가?

- 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법인이 추구하는 바를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 자신이 속해 있는 기관의 미션, 비전을 이해하여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
- 기관이 추구하는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안에 있는 나도 같은 목표를 갖고 일할 수 있고 그래야 기관과 개인이 모두 성장할 수 있기 때문
- 내가 속해 있는 기관과 법인이 하려는 일과 목적을 알아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쓰일지 알 수 있고, 또한 그 방향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거나 내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도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톨릭에서 사회복지를 하는 근거

Caritas

가톨릭교회에서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이유, 근거



-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 받고 어렵게 생활하는 이웃에 대한 사랑 실천
- 카리타스의 의미처럼 “사랑, 애덕, 자선”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함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미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헌신합니다.”

교회 정체성의 표현(교회의 가장 깊은 본질)



교회의 가장 깊은 본질

교회 정체성의 표현(교회의 가장 깊은 본질)



- 복음선포 : 복음이란 복된 소리(기쁜소리)를 말함.
-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로서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복음선포”
- 말씀선포 : 성경을 읽고 이해함으로서 다른 이에게 그 내용의 본질을 전달하고 풀이해주는 것
- 성사거행(전례) : 교회가 하느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 성사에 참여함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것

교회 정체성의 표현(교회의 가장 깊은 본질)



- 사랑실천 : 카리타스 교회의 사랑실천활동과 기구를 가리키는 말
- 봉사를 뜻하는 그리스어로서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봉사를 가리킴. 사랑의 섬김은 일종의 선택적 복지활동이 아니라 교회 본질의 한 부분이며 교회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필수적 표현.
- 따라서 가톨릭사회복지회는 가톨릭신앙의 필연적 귀결이며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사회 속의 교회”이기 때문임.

교회 정체성의 표현(교회의 가장 깊은 본질)

첫 신자 공동체의 생활 (사도 2, 42-47)



- 그들은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말씀의 선포) 빵을 떼어(나눔의 상징) 나누고 기도하는 일(성사거행)에 전념하였다.
-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 그들은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 주님께서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었다.

교회 정체성의 표현(교회의 가장 깊은 본질)

복음선포의 진실성에
대한 시금석

-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 해야 하고, 증명할 것을 요구 받고 있다.



-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가톨릭사회복지회는 교회가 믿고 선포하고 거행하는 바가 진실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시금석

교회 정체성의 표현(교회의 가장 깊은 본질)

가톨릭사회복지회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반드시 부여되는 의무사항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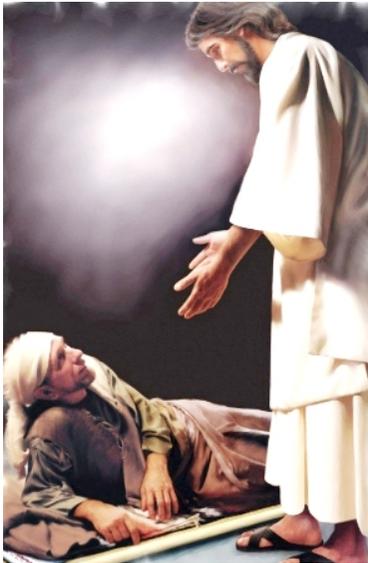
그 공동체가 살아 있다는 척도

세상 속에서 교회의 근본적인 기능이고

본질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것

사랑의 이중계명 : 이웃사랑의 실천

가장 큰 계명
(루카 10, 25-28)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느님의 명령

-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
-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 그가 “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까”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사랑의 이중계명 : 이웃사랑의 실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루카 10, 25-28)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 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사랑의 이중계명 : 이웃사랑의 실천

최후의 심판 (마태 25, 31-46)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싸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에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사랑의 이중계명 : 이웃사랑의 실천

최후의 심판 (마태 25, 31-46)



그때에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 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듯이 맞아 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때에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사랑의 이중계명 : 이웃사랑의 실천

최후 심판의 근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곤경에 처한 타인에게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



사랑의 이중계명 : 이웃사랑의 실천

하느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웃 사랑의 실천 행위

개인적 사랑 실천 행위와 함께

교회 공동체로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실천되는 사랑 실천 행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평등의 실현과 나눔의 실천

초대 교회의 핵심 가치는 평등의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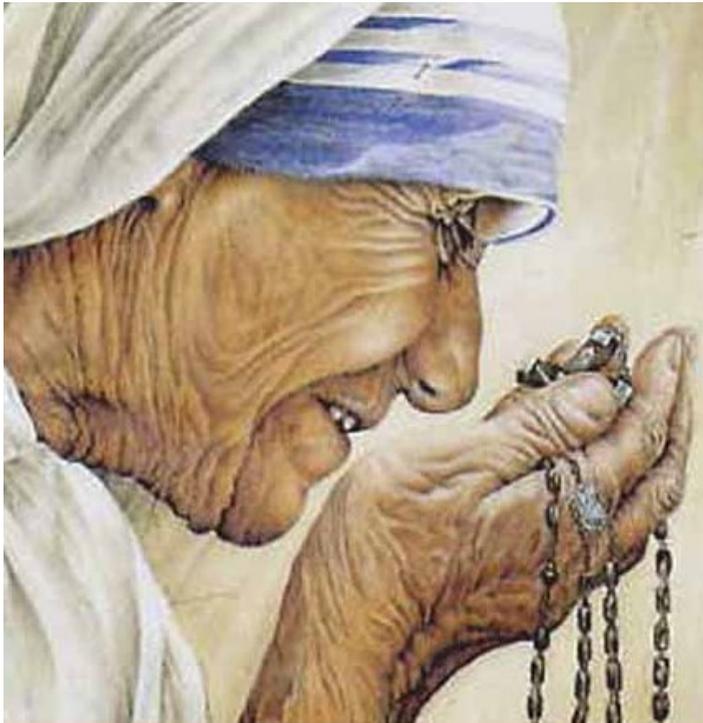
- 모든 사회적 차별을 넘어서 모두가 다 형제자매
-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차이를 뛰어 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라는 신앙의 고백을 실천을 옮기는 것

초대교회의 공동체 생활과 나눔 실천 (사도 4,32-35; 사도 11,27-30)



- 아무것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
- 공동체 안에서 평등의 실현과 나눔의 실천은 강자가 약자에게,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시혜나 자선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신 그 신앙의 신비를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고 체험하는 것
- 곤경에 처한 공동체를 위하여 모금과 나눔

평등의 실현과 나눔의 실천



공동체 안에서의 평등의 실현과 나눔의 실천은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차이를 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모두가 한 형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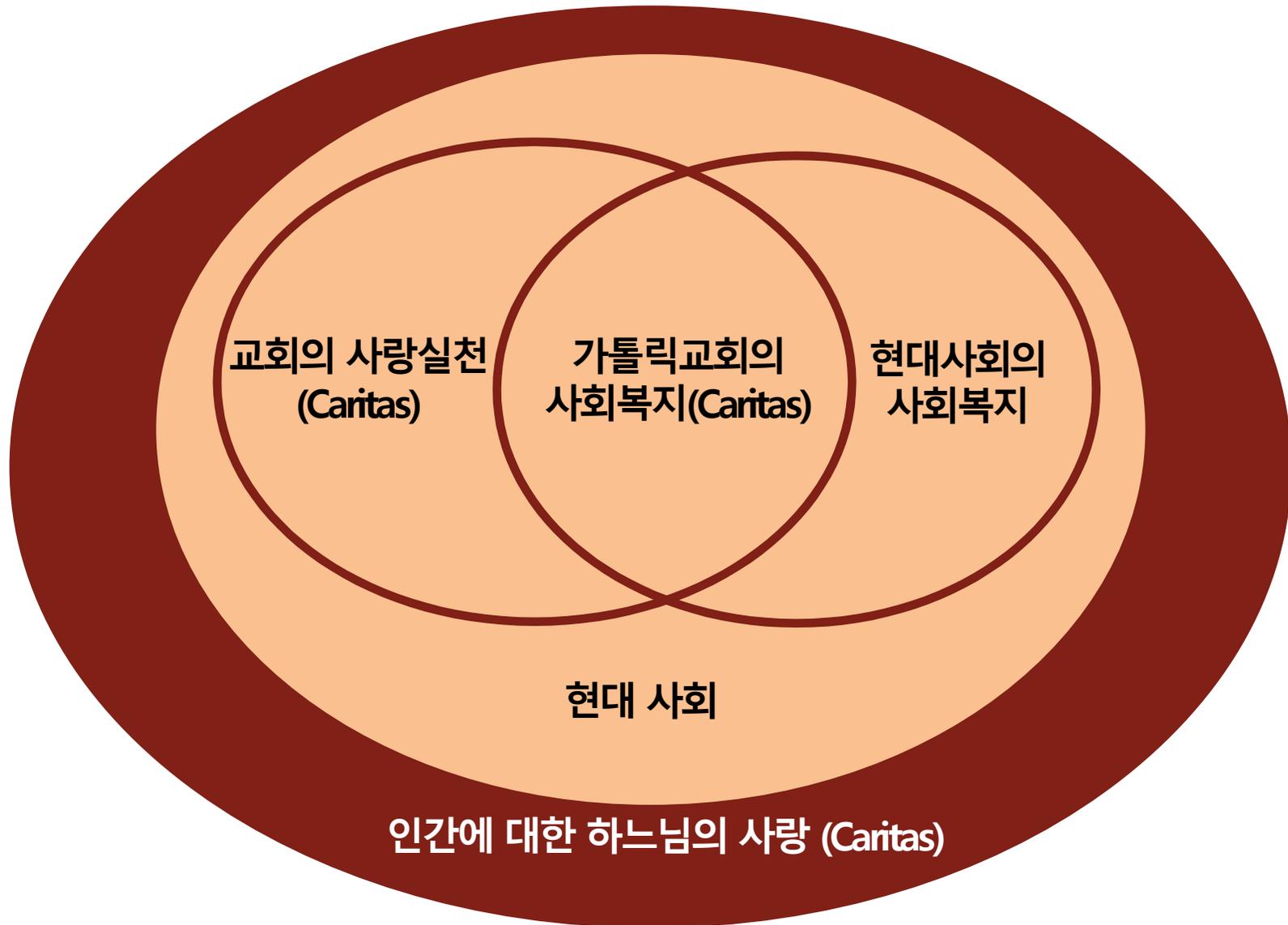
자매라는 신앙의 고백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



가톨릭사회복지 고유성과 실천원리

Caritas

가톨릭사회복지의 고유성, 실천원리



가톨릭사회복지의 실천원리

- 사회교리에 입각한 개념적 원리



- **인간존엄성의 원리 (The Principle of Human Dignity)**
-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 창조되었기에 동등한 존엄성을 지님
- 모든 사회제도의 근원도 주체도 목적도 인간이어야 함. 개인의 인권이 사회나 국가, 정치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창조주 하느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함
- 하느님 앞에서 지닌 존엄성을 인간이 다른 사람 앞에서 갖는 존엄성과 평등의 기초가 됨

가톨릭사회복지의 실천원리

- 사회교리에 입각한 개념적 원리



- **공동선의 원리 (The Principle of Common Good)**
- 모든 사람의 권익과 행복한 삶을 위한 정상적이고 안정된 공적인 조건을 마련하는 것
- 모든 사회 구성원이 더욱 쉽고 충만하게 자기완성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사회생활 조건들을 총칭하는 원리
- 인간은 개인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일원이므로 공동의 이익을 존중해야 함

가톨릭사회복지의 실천원리

- 사회교리에 입각한 개념적 원리



- 재화의 보편적 목적 (The Universal Destination of Goods)
- 재화의 기원은 하느님에게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재화를 누리도록 하느님께서 정하신 재화의 목적이 있다는 것
- 재화의 소유자가 자신의 재화를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선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촉구함.

가톨릭사회복지의 실천원리

- 사회교리에 입각한 개념적 원리



- 연대성의 원리 (The Principle of Solidarity)
- 개인들 간에 개인과 사회, 민족들 간에 상호의존과 유대를 바탕으로 서로 책임을 지고 돌보아야 한다는 원리
- 아무도 소외됨 없이 모두 함께 도와 성장하고자 하는 지향을 통해 분열을 넘어 일치를 추구하며, 개인이나 특정한 집단의 이해를 넘어 보편적 선익을 위해 헌신하려는 의지

가톨릭사회복지의 실천원리

- 사회교리에 입각한 개념적 원리



-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The 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
- 가난한 이들에 대한 책무는 그리스도 신자들의 이웃 사랑의 생활방식에 적용되어, 재화의 소유와 사용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기준이 됨
- 애덕 실천은 자선행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빈곤 문제의 사회정치적 차원들에 대처포함

가톨릭사회복지의 실천원리

- 사회교리에 입각한 개념적 원리



- 보조성의 원리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 국가와 같은 상위 단체는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되, 개인과 작은 단체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원리
- 보조성의 특징은 참여 (국민이 개인과 집단과의 연합을 통해 문화, 경제, 정치, 사회생활에 이바지하게 하는 일련의 활동)

가톨릭사회복지의 고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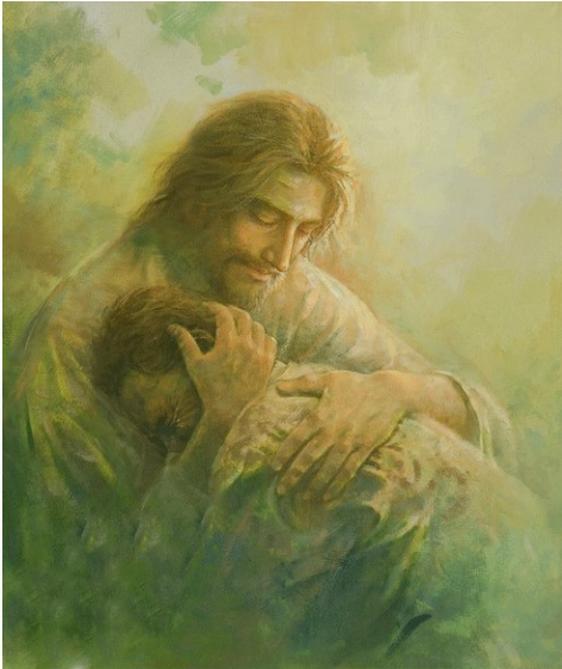
-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에 근거한 실천원리

- 사랑실천, 가톨릭사회복지 활동은 교회 본질의 한 부분이다



가톨릭사회복지의 고유성

-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에 근거한 실천원리



- **보편적인 사랑 실천이고 영적인 돌봄까지도 포함한다**
-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처럼 우연히 마주치는 가난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보편적 사랑
- 사랑의 봉사는 지극히 구체적이며 영적인 봉사, 영적 돌봄까지 포함
- 사람들의 일시적 욕구충족뿐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정성이 필요
- 전문적 훈련뿐 아니라 마음의 양성이 필요 (종사자들의 내적동기, 영성)

가톨릭사회복지의 고유성

-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에 근거한 실천원리

- 국가와 다른 교회와 공동체들과 협력한
다
- 다른 교회와 공동체들의 사회복지 기구들과 기꺼이
협력할 것을 강조
- 인간이 존엄성에 부합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참된 인도주의를 지향하기 때문



가톨릭사회복지의 고유성

-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에 근거한 실천원리

- 긴급한 요구와 특수한 상황에 무조건 응답한다
-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처럼 무엇보다도 긴급한 요구와 특수한 상황에 무조건 응답하는 것



가톨릭사회복지의 고유성

-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에 근거한 실천원리



- **종사자의 전문적 역량과 마음의 양성을 필요로 한다**
- 전문적인 역량이 일차적인 요건이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마음의 양성이 필요
- 마음의 양성이 도달해야 하는 목표는 ‘보는 마음’
- 사랑이 필요한 곳이 어딘지 보고 거기에 따라 알맞은 행동을 하는 것. 신앙을 떠나 누구든지 실천할 수 있음. (남녀간 사랑, 부모자식간 사랑, 타자에 대한 연민 등)

가톨릭사회복지의 고유성

-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에 근거한 실천원리



- 사랑을 각종 권유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 사랑은 다른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됨
-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하느님에 대한 가장 훌륭한 증언임
- 구원에 대한 포괄적 접근 (기관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신앙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음)

가톨릭사회복지의 고유성

-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에 근거한 실천원리



- 당파와 이념에서 벗어나 온전히 헌신하여 직접 선행을 실천한다.
- 사랑실천은 세상을 이념적으로 변화시키는 수단이 아니며 세상의 전략에 일조하는 것 아님
- 당파적 전략과 원칙에서 벗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임.

가톨릭사회복지의 고유성

-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에 근거한 실천원리

- **교계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 교계제도의 틀에 따라 보조성의 원칙에 맞게 이루어 짐
- 가톨릭 정신으로 세워져 활동하는 기구들은 국가가 제정한 법 규범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고 신자들의 지향에 일치하여 운영되어야 함

